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3호 [루게 제25001호] 주제104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여자축구선수들을 따듯이 맞아주시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자랑스런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또 하나의 경이적인 체육신화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며 10월의 대륙전장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빨찌산공격방식으로 눈부신 황금의 9개 골을 터뜨리며 맞서는 강팀들인 일본팀, 중국팀, 남조선팀을 여지없이 눌러버리고 변전전승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여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쥔 선군조선의 장한 딸, 빨찌산녀전사들이 10일 비행기로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비약의 기상을 과시하며 세인을 놀래운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비행장에서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직접 맞아주시었다.



어머니조국에 안고 온 우리의 장한 여자축구 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이 제시한 빨찌산 공격전법으로 싸워 이번 경기대회에서 주체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스런 선물을 마련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었다.

치열한 경기의 나날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뵈고싶었고 승리의 단상에 올라 조국의 하늘을 그려볼 때에도 자애로운 그 영상이 후덥게 어려와 걱정의 눈물속에 우리드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 땅에 도착하는 첫 순간 제일먼저 뵈우게 된 여자축구선수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누르지 못하며 원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들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체육상 김영훈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련맹 위원장 김정만동지가 비행장에 함께 나왔다.

경기마다에서 선군조선체육인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친 우리의 미덥고 장한 여자축구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펼쳐 나온 환영군중의 얼굴마다에는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를 비롯한 지난 경기대회들에서 지역의 강팀들을 물리치고 편승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단연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조선여자축구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친 크나큰 자랑과 기쁨이 한껏 넘쳐 있었다.

오후 4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항공역앞 정류장에 들어섰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정류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북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비행장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져 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예의 금메달을

2 면 으 로 계 속

